

# “손님은 없고 비용만 늘어”... 사라지는 동네 PC방

## 광주 21곳·전남 29곳 등 1년 새 50곳이나 문 닫아 인건비·전기료·부품값 상승 등 경영난에 ‘줄폐업’

광주·전남지역 PC방 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용객 감소로 매출은 줄어드는 반면 인건비와 임대료, 전기요금 등 고정비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컴퓨터와 그래픽카드 교체 비용 상승과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까지 겹쳐 업주들은 폐업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광주지역 PC방 수는 242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263곳보다 21곳 감소한 수치다. 전남 역시 지난해 4월

276곳에서 올해 4월 247곳으로 29곳 줄었다. 광주와 전남을 합하면 불과 1년 만에 50개 업소가 시장에서 사라진 셈이다.

이 같은 감소세는 단순한 업종 재편 수준을 넘어 지역 PC방 산업 자체가 위축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광주 지역 내 PC방 수는 올해 3월 239곳에서 4월 242곳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여전히 8% 가까이 감소한 상태다. 전남도 전월 대비 감소폭은 크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가장 큰 원인으로 이용객 감소를 꼽는다. 과거 학생과 청년층의 대

적인 여가 공간으로 자리 잡았던 PC방은 모바일 게임과 콘솔 게임 시장 확대, 온라인 콘텐츠 소비 방식 변화 등으로 이용 수요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다. 집에서 고성능 PC를 갖추고 게임을 즐기는 이용자가 늘면서 PC방만의 경쟁력이 예전보다 약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구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정모씨(42)는 “코로나19도 큰 위기였지만 팬데믹이 끝난 후 방학이나 주말이면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다”며 “게임을 즐기는 인구 자체는 많지만 PC방을 찾는 빈도는 크게 감소한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는 매출 감소와 함께 비용 부담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00원으로 처음 1만원 선을 넘어섰다. 야간 운영 비중이 높은 PC

방 특성상 아르바이트생 인건비 부담은 상당하다. 특히 24시간 영업을 유지하는 매장인 인건비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최근 들어서는 전기요금 문제가 가장 큰 고민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PC방은 수십 대에서 많게는 100대가 넘는 컴퓨터를 동시에 운영하는 대표적인 전력 다소비 업종이다. 냉난방 시설과 환기장치까지 상시 가동해야 해 전기 사용량이 일반 자영업 업종보다 훨씬 많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이달부터 시행되면서 업계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업주들은 이미 누적된 전기요금 인상으로 운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추가 인상까지 현실화될 경우 폐업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서구에서 PC방을 운영하는 강인중씨

(47)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매출은 예전 같지 않는데 인건비와 전기료, 임대료는 계속 올라 사실상 버티기 경쟁을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당장 이번달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이 적용되는데, 하필 에어컨을 하루종일 가동하는 시기와 겹쳐 다음달 고지서를 받는 것이 벌써부터 두렵다”고 덧붙였다.

고사양 게임 환경에 맞춘 시설 투자 부담도 적지 않다. 최근 출시되는 온라인 게임들은 고성능 그래픽카드와 CPU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PC방 업주들은 경쟁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장비를 교체해야 한다. 하지만 환율 변동과 반도체 시장 변동을 유지하면서 투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근의 감소세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모바일 중심의 게임 문화 확산과 인구 감소, 경기 침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중소 규모 PC방을 중심으로 폐업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인터넷PC기폐협동조합 전남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라는 큰 고비를 넘겼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더 힘들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며 “손님은 줄고 운영비는 계속 오르는 구조가 고착되면서 업주들의 체감 경영환경은 최악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까지 시작된 만큼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역 PC방 업계의 폐업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 aT, ‘딸기’ 사계절 생산 확대 연중 생산 기술설명회 개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최근 서울 aT센터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딸기 유통 및 수출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사계절 딸기 생산을 위한 기술설명회’를 개최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5일 서울 aT센터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딸기 유통 및 수출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사계절 딸기 생산을 위한 기술설명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사계절 딸기 생산 가능성을 살펴보고, 향후 딸기 공백기인 하절기 수출 확대와 연계할 수 있는 생산기술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스마트 농업 분야의 육종 신기술을 보유한 업체 중 하나인 농업회사법인 에코넷(대표 김효성)이 모듈형 실내 스마트팜을 활용한 생육 환경 제어 기술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고 사계절 생산 가능한 환경제어 농업 시스템 구축 방안을 업계 및 전문가들과 공유했다.

해당 기술은 실내 재배시설에서 온도, 습도, 광량, 이산화탄소 등 생육에 필요한 환경을 제어해 연중 안정적이고 균일한 생산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어 해당 기술의 적용 가능성과 향후 검증 필요 사항 등이 함께 논의됐다.

aT는 사계절 딸기 생산기술을 포함한 스마트 농업 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농식품 수출·유통 정보를 바탕으로 사계절 생산 물량 확대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나주=조원현 기자 pose007@

## 식음료계, ‘스벅 사태’에 mim마케팅 피한다

### ‘사건 정리표’ 등장...여름 대목 커피업계, 안전·충성고객 관리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 데이’ 이벤트 논란이 식음료 업계 전반의 마케팅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가 기념일이나 사회적 이슈를 사전에 점검하는 이른바 ‘사건 정리표’까지 등장하며 기업들의 마케팅 검수 절차가 강화되는 분위기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빙그레는 2022년부터 호국보훈의달(6월)·국군의날(10월 1일)에 진행하던 자사 아이스크림 ‘탱크

보이’의 군부대 후원 행사를 올해도 진행할지 여부를 고심 중이다. 식음료 업체와 커피 프랜차이즈는 스타벅스 사태 이후 소비자 반응에 더욱 민감하게 대응하며 마케팅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마케팅 일정 수립 과정에서 국가 기념일이나 사회적 이슈 등을 함께 점검하는 이른바 ‘사건 정리표’까지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한 치킨 기업이 불륜을 암시하는 B급 감성의 ‘AI 광고’를 공개한 후 비판이 제기되자 사과문을 내기도 했다.

다만, 업계 입장에서는 아이스 음료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 성수기를 놓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각 업체는 대규모 화제성 마케팅보다는 충성 고객과의 접점을 강화하는 방식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할리스는 SNS를 활용한 소비자 참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커피빈도 여름 신메뉴 이름 맞추기 행사를 통해 무료 음료권을 제공했다. 더본코리아 역시 하반기 백다방 20주년을 맞아 고객 참여형 프로모션과 멤버십 강화 등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 광주상의, 실무역량 강화 실무교육 개최

광주상공회의소는 오는 9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회원기업 대상 6월 실무강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마케팅 및 세무·회계 부서 담당자들의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AI를 활용한 콘텐츠 기획 및 사업화 전략 구성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기초개요와 개정세법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9일에는 ‘AI 마케팅 개념과 활용 실무’ 교육이 마련된다. 손정일 강사가 강연에 나서 AI 기반 콘텐츠 기획 및 사업화 전략, 고객 데이터 분석을 통한 마케팅 전략 등의 내용을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4시간 동안 진행한다.

이어 24일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전 Check! 포인트’라는 주제로 이석정 세무사가 강연에 나선다. 세무·회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날 강연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주요내용과 부가세 신고와 납부 등을 중심으로 4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광주상의 홈페이지(www.gjcci.or.kr)를 참고 또는 회원사업본부(062-350-5883)로 문의하면 된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로또 6/45

1 14 16 34 41 44

로또 1등 11명...당첨금 각 26억7000만원

제1227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 14, 16, 34, 41, 44'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3'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1명으로 26억7481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70명으로 각 7005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042명으로 161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1881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25만3341명이다.

연합뉴스

# 중심을 잡습니다 핵심을 전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는 국내외 최대 취재망을 통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다양한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균형잡힌 언론의 시작은  
언제나 연합뉴스입니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  
YONHAP NEWS AGENCY

연합뉴스 | 연합뉴스TV | 연합인포맥스